

CAMP NEWSLETTER

캠프 뉴스레터
주민 주도, 자립의 길

2022 가을호, October

Vol. 45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삶을 기록하는 '롤라의 꿈'



▲ 필리핀 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 에스텔리타 할머니 방문 인터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일본군'위안부'피해,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낳았지만, 현재 피해 생존자들은 소수가 남았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피해 생존자들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90대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고립된 시간을 보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992년 필리핀 롤라 로사 한슨의 증언을 시작으로 일본군'위안부'대응 활동이 본격화된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일본군'위안부'대응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해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피해 생존자

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원 단체들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캠프는 현재 증언이 가능한 생존 당사자, 가족, 활동가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기존 기록집들은 피해 당시 증언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기록집은 생존자들의 현재 삶에 초점을 맞춰 피해 이후의 삶, 그리고 증언하게 된 배경과 계기, 피해 생존자가 느꼈던 주변과 가족의 반응, 증언 이후 활동, 일본 정부에 대한 입장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생존자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회한 등을 입체적으로 담아낼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양미강 이사는 “한국에서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 수 있는 소개 자료와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번 기록집을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이 문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캠프 평화와개발센터가 추진해온 여성과 평화 관점에서 평화 ODA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는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연내에 '롤라의 꿈'(가제)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롤라는 따갈로그어로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캠프의 1호 사회적기업, 익팅(Igting) 설립 11주년 기념 행사

1

지난 7월 15일, 익팅(Igting)의 설립 11주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설립 10주년 행사를 열지 못했던 아쉬움을 딛고 주민들과 익팅 멤버들이 함께 모여 기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식전 행사에서는 어머니들의 에너지와 단합을 보여주는 단체 춤바를 시작으로, 익팅의 설립 이념인 ‘지역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어린이들을 위한 음식 및 선물 전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리더들의 축사로 익팅의 가치와 비전을 되새기고, 상장 수여식과 미니 게임, 익팅 멤버들의 전체 합창 등의 순서를 진행하며 걸어온 길들을 함께 기억하였습니다.

필리핀 빈민지역 타워빌 봉제센터 익팅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나이들과 타워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익팅의 11주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캠프와 익팅을 향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1주년 행사 익팅 멤버들



나나이 에블린 축사



식전 행사 타워빌 어린이들



익팅 봉제센터의 미래를 세워가는 한걸음

2

캠프 현장에 파견된 KCOC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원 3인(류혜원, 박성연, 조혜수)은 지난 7월부터 봉사단원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필리핀 불라칸주 타워빌 사회적 기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익팅(Igting)에서 일하던 기존 멤버의 은퇴로 영입된 새 멤버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봉제기술훈련 등 익팅의 멤버가 가져야 할 사회적기업 정신과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캠프는 프로젝트를 통해 익팅이 지역을 위해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역량강화교육 및 봉제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봉제기술훈련의 경우, 이제는 봉제기술 전문가가 된 익팅 어머니들이 신규인력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하며 함께 익팅의 든든한 미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캠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익팅 역량강화교육



익팅 봉제기술훈련



익팅 봉제기술훈련

故 이경민 이사를 추모하며



▲ 필자(왼쪽), 이경민 이사(오른쪽)

캠프의 창립멤버이자 이사로 지금까지 활동한故 이경민 이사(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 교수)가 지난 7월 23일, 향년 59세로 별세했습니다.

故 이경민 이사는 생전, '본인은 의사이지만, 의사 중심의 종속적인 보건의 아닌, 지역민 주도적인 건강권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3세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뜻에 따라 주민들에게 혈압측정, 기초적인 문화 데이터 수집 등을

훈련하시며 늘 이들의 옆과 뒤를 지켜봐 주었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타워빌 내 구역별 핵심 리더 그룹을 선정하고, 이들을 통해 긴급 상황 시 주민들을 보건 센터로 연결하는 ETS 시스템(ETS Volunteer Program), BKP(지역 건강 모니터링 팀), 클리닉코뮤니다드(Klinikomunidad, 의료협동조합)을 조직하였습니다.

한 의사로서, 사람들을 위한 한 지구인으로서 책임을 다한故 이경민 이사의 노고를

통해 캠프는 모자보건 중심에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 예방 교육 등 실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故 이경민 이사는 캠프에게는 새로운 통찰을 주시는 선생님이었고, 주민들에게는 늘 옆과 뒤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애달픈 마음을 모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글 | 이철용 (사단법인 캠프 대표)

이예담 인터뷰



캠프의故 이경민 이사의 자녀인 이예담 씨가 캠프 사무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예담 씨는 캠프의 이철용 대표와 양미강 운영위원장과 함께故 이경민 이사의 발자취를 이야기하고, 그 뜻을 잇기 위한 방법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보건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일자리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한 이예담 씨는 재학 중인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으로 돌아가 현장 실천적인 고민들과 학문을 결합하고, 캠프의 사례를 연구할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캠프는 앞으로 필리핀과 더불어 동남아 보건 베이스 사업에 있어 이예담 씨와 함께 보건 역량 강화를 확산할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아버지인故 이경민 이사의 의지를 이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도적인 건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과 학문의 길을 걸어갈 이예담 씨를 응원합니다.

01



함께하는 인턴 소개

2022년 하반기 ODA YP(영프로페셔널)로 선발된 이유정, 이하람 인턴을 소개합니다. 두 인턴은 8월부터 기관 교육을 통해 캠프의 국제개발현장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 뒤 캠프의 행정과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유정 인턴은 '캠프와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로서 열심히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이하람 인턴은 '캠프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립 마을 만들기에 동참하게 되어 기대됩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열정 가득한 인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02



CAMP 게더타운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캠프의 피스-버스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Peace-Verse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Program)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최하고 캠프가 주관한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의 세부목표 16.1 '모든 폭력의 근절'에 기반한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필리핀 청년(만 20세~24세) 참가자들은 5회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일상의 평화와 평화실천의 방법을 고민하며 평화 감수성을 증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인 캠프 게더타운 타워빌(CAMP Gather Town Towerville)에서 온라인 부스를 구축하며 코로나19 및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국제교류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03

캠프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캠프가 와디즈(WADIZ)를 통해 '가치를 더한 필리핀 업사이클링 힙색, 천으로 이어지는 천 가지 마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딩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 필리핀 타워빌의 학생들을 위한 교복 구매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리워드로는 캠프의 1호 사회적기업, 익팅(Igting)에서 남은 교복 천으로 제작한 업사이클링 힙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긴 타워빌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채우고, 건강한 배움이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라우드 펀딩

후원 계좌

KEB 하나은행
415 - 890009 - 19504
(사단법인 캠프)



캠프 후원하기

- www.icamp.asia
- campint@icamp.asia
- blog.naver.com/camplove11
- www.facebook.com/camp.asia
- [@camp_int](https://www.instagram.com/camp_int)
- 유튜브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카카오톡 채널
카톡 검색창 '사단법인 캠프' 검색
- 캠프 게더타운 <https://url.kr/9lyca8>

캠프 본부(한국)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9길 28-1 (당산동6가) 3층
Tel. 02-3147-0309, 0310 Fax. 02-3147-0308

캠프 아시아(필리핀)

마닐라 : Unit 205, 2nd floor, 78-80 Polaris,
Barangay Bel-Air, Makati City, Metro Manila
불라칸 : Lot A-2, Upper Quarry, Barangay Minuyan
proper, San Jose Del Monte City, Bulacan
탈 락 : Sapang Kuran, Barangay Moriones, San Jose,
Tarlac
Tel. +63-2-697-6076



1%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강남동산교회



강남동산교회 소개

강남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1%의 변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역과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아닌 세상과 이웃에 시선을 맞추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춘익 원로목사님의 건강한 은퇴 마무리와 1%의 변화를 추구하는 고희진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자립선교를 고민하는 강남동산교회와 캠프의 만남

선교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던 차에 자립선교를 시작한 신학교 동기인 이철용 목사님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탐방을 하고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가 이미용, 치과 의료봉사를 타워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임청년들이 타워빌에 머무르면서 센터 벽화 꾸미기, 여름 성경학교 등을 하면서 캠프와의 관계를 맺어 이어오고 있습니다.

캠프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자립선교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자립선교는 곧 자립 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립선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후원과 지지가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프의 자립선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나날수록 꽃 피는 강남동산교회의 비전

강남동산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선교나 전도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 이웃이기에 돕는다고 하는 단순한 일로 시작합니다. 강남이지만 의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차상위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기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 창립 40주년이 되면서 교회 내부의 행사는 지양하고 외부에 관심을 갖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 프로젝트(가정 필수품 제공, 제습기, 냉장고 설치) 등을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 사랑은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랑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랑을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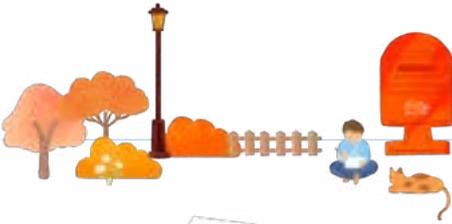
글: 경주식 목사(선교 목사)



이철용 대표가 전하는 포토에세이



글·사진: 이철용 목사



▲ 소고로교회 콩물 나눔



▲ 딸락 농촌지역 모내기

지난 주말 생산시설 전체를 정비하고 콩물을 생산했습니다.

생산한 콩물을 인근 소고로교회에 전달하고 교회 식구들끼리 나눔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목사님의 SNS를 보니, 동네 주민들과 콩물을 나누셨네요.

목사님은 교회 식구들끼리 나누는 것보다 지역과 나누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콩물 한 컵의 사랑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캠프는 필리핀연합교회(UCCP) 마닐라북노회와 동반자 사역을 통해 현지 농촌 교회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이면 추수를 해서 개인도, 교회도 자립하는 꿈을 꾸지만, 올해는 비료가격이 2~3배로 증가해서 모두들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프는 공동으로 벼농사를 짓고, 법씨와 비료를 이자 없이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농가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롬 5:2-3)



▲ 익팅 설립 11주년 행사와 멤버들

지난 7월 15일은 봉제센터 익팅(Igting)의
설립 11주년이었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어머니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 1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익팅은 천장의 단열재가 낡아 새알, 배설물, 나뭇가지,
먼지가 어머니들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캠프는 10년이 지나 낡아버린
지붕 수리를 위해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익팅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 합류한 멤버들을 위해 봉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익팅의 가치를 공유했습니다.

익팅의 어머니들은 가정에 희망을,
지역에 사랑의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팅이 자녀들의 교육과 생계로 고민하던
주민들에게 즐겁게 일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지난 11년 동안 익팅과 곳곳하게 버텨온
캠프는 앞으로도 익팅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완성해가는 캠프의 소명

'캠프, 물음에 답하다'는 제 3의 시선으로 캠프에 관해 묻고 답하는 문답형 에세이로, 캠프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1 멈출 수 없는 걸음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필리핀을 포함해 전 세계에 파견되었던 활동가들과 봉사단원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사역지가 그대로 멈춘 곳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캠프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익팅 봉제센터도, 유치원도, 진료센터도 모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봉쇄정책으로 이동도 쉽지 않아 당장 끼니를 고민해야 하는 타워빌 주민들의 생계가 우려되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익팅 봉제센터는 시청의 허가를 얻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여 필리핀의 수많은 곳에 전달하였습니다. 농업 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팬트리를 열어 쌀, 달걀, 콩물 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부터 시작하니 '멈추었다'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캠프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2 함께 완성해가는 캠프의 소명

캠프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인턴으로, 봉사단원으로 일했던 청년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캠프 장학생이었던 필리핀 학생이 직원이 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일합니다.

캠프의 원동력은 캠프와 함께하는 이들의 걸음에 발맞추며,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가꾸는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캠프의 역할은 아이들에게는 꿈을, 청년들에게는 지역과 나라를 위한 도전을,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열도록 역량을 높이는 일입니다.

3 '만남', 그리고 부르심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온전히 한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캠프의 사역 또한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온전한 마을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캠프의 소명은 '이웃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에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_ 로마서 8:28

